

# 유럽스탠다드 석션감염관리 “Orotol® plus Family”

| The World's First & The Most Widely Used Since 1965 <sup>1)</sup>

| 유럽스탠다드 인증으로 입증된 감염관리 효능 <sup>2)</sup>

| 냄새나는 타구대부터 오염된 석션까지 한번에 쉽게

| 3회 사용만으로 바이오필름/감염균 99.9999% 감소 <sup>3)</sup>



<Reference>

- 1) Official DuerrDental Homepage - <https://www.duerrdental.com/en/products/hygiene/hygiene-preparations/special-areas/>
- 2) Product information Orotol® plus disinfection of suction systems
1. Testing at high burden (VAH, EN 13727, EN 13624, EN 14561, EN 14562, EN 14476)
2. Testing without and at low burden (EN 14348, EN 14563)
3. Testing with and without burden in accordance with DVV/RKI guidelines
4. In accordance with RKI statement (Federal Health Bulletin 60, 353-363, 2017) / 5. Testing at low burden. High burden: 2%/2 h, 4%/15 min
- 3) Test report done by HYGCEN GERMANY GMBH, 2018 / EXPERT OPINIONS for VAH of Orotol plus Disinfection of suction system, 2018



## I 매일 사용하는 유닛체어 석션, 얼마나 오염되어 있을까?

새 유닛체어에서 단 5일만의 진료로 20만개 박테리아/ml 가 검출될 만큼, 석션 소독은 매일 실시해야 합니다. 매일 하지 않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할 경우 석션라인은 바이오필름과 감염균으로 빠르게 오염되고 석션장비까지 고장납니다. 특히, 습도와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 그 감염 정도와 범위는 더욱더 빠르고 광범위해집니다.



바이오필름과 감염균으로 오염된 석션

## I 대표적으로 잘못된 석션 감염관리의 예

- 물로만 헹굼
- 뜨거운 물을 석션라인으로 흘려보냄
- 비(非) 치과용 제품의 사용 (가정용, 락스 등)
- 소독 행위 없이 세척제만 계속 사용

## I 오염된 석션은 진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악취 유발



흡입력 저하로 진료방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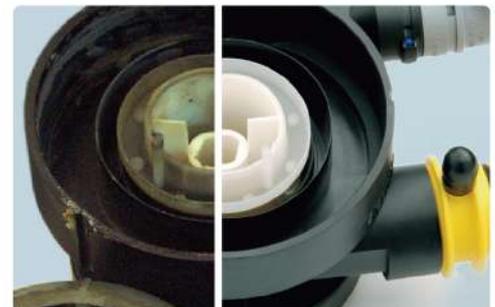
에어로졸 감염위험



석션 과부하로 인한 고장

## I 독일 뒤르덴탈 “Orotol® plus 석션 감염관리, 왜 특별할까?

- 세계최초의 석션소독제 (1965년)
- 유럽스탠다드 인증으로 검증된 높은 신뢰성
- 글로벌 유닛체어 회사들의 메뉴얼에 석션관리 제품으로 표기
- OroCup으로 효율적인 업무와 시간을 단축



사용전

사용후

## I 이런 치과에 권합니다.

- 잘못된 석션 감염관리를 이행
- 타구대와 석션 악취
- 글로벌 신뢰성을 가진 치과전용 제품을 선호
- 의료진과 환자의 에어로졸 감염위험 우려
- 유럽스탠다드 감염관리를 통해 환자 케어